

60년 3월 창립 ... 회원 7백69명 활동 한국농화학회

한국농화학회는 1960년 3월26일 서울대 농대에서 81명의 회원으로 출범하였다. 창립 36돌을 맞은 농화학회는 그동안 회지를 통해 연간 학술논문 1백여편을 발표해오고 있으며 회원수도 꾸준히 늘어 현 7백69명의 농화학자들이 뭉쳐 양성한 연구활동을 펴고 있다.



全在根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교수)

〈학문적 성격〉 농업은 대지로부터 인류가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는 인류 최대의 산업이나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많은 비옥한 밭이 있는가 하면 척박한 논이 있다. 여기에 비료가 필요하게 되었고 작물의 갖가지 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애써 기꿔 거둔 수확물은 며칠이 못 가서 썩어 버리니 저장, 보존, 가공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화학적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화학이란 학문이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농학은 국내 농과대학에 설치되어 각 농업 전반에서 필요한 화학적 이론을 전개하고 실용화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따라서 농화학의 학문 영역은 토양, 비료, 식물 생리, 생화학, 농약, 식품, 발효, 환경 등 아주 광범위하고 다양성을 지녔다. 특히 생명공학이 중요시되는 요즘 농업에 관계되는 제반 생명현상을 학문적으로 밝혀내는데 작물의 개체에서 세포 단위로 또 분자 단위에서 규명하여야 하는 학문 발달 과정을 볼 때 농화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초대 회장에 김호식교수가 말아

〈연혁〉 한국 근대 농학의 선구자셨던 조백현교수님과 농화학 학문분야를 개척해 주셨던 김호식교수를 중심으로 이춘영, 이재현, 오왕근교수 등 22명이 1959년 10월 2일 농화학회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개월간의 준비끝에 1960년 3월 26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서 한국농화학

회(Korean Agricultural Chemical Society)를 창립하였다. 조백현박사(서울 농대 학장)를 고문으로, 초대 회장에 김호식교수(서울 농과대학 농화학과), 부회장에 이봉희, 김영섭을 선출하였다. 다음 해인 1961년 8월31일에는 문교부에 학술단체로 등록하였고 창립 당시의 회원은 81명이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농화학자들이 힘을 결집하여 연구와 학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장이 마련되었다. 동년 6월11일에는 1차 학술 발표회를 개최함으로써 농화학자들의 연구 논문이 빛을 보게 되었다.

1960년 12월에 학술 논문 11편을 실은 한국농화학회지(Journal of Korean Agricultural Chemistry) 창간호를 발행하여 농화학자들의 연구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논문의 양과 질이 향상되면서 1996년 현재 연간 1백여편의 학술 논문이 게재됐으며 통권 29권을 발행하기에 이르렀고 회원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7백69명에 이르고 있다.

다양한 전공분야를 다뤄야 하는 한국농화학회는 각 분야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차츰 전문 학문영역의 연구가 심화되면서 학문영역별로 새로운 학술단체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즉, 1968년에 한국식품과학회, 1965년에 한국토양비료학회, 1981년에 한국환경학회, 1973년에 한국산업미생물학회, 1996년에 한국산업식품공학회 등이 창립되었다. 이러한 학문의 세분화·전문화는 과정상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한국농화학회 회원들의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였는가를 입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위에 열거된 학회들의 학자들이 대부분이 본 학회의 회원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학문 발달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였는지를 알 수 있으며 기타 인근 학문 영역학회들에서도 본 학회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농화학회는 인근 학문과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을 뿐 아니

라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기초 학문과 응용분야가 골고루 조화된 농업분야에서 유일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해 주고 있는 학회중의 하나로 국내외적으로 유명학회가 되었다.

본 학회는 금년에 36돌을 맞았고 학회의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학문의 발달 과정을 보는 느낌이 들 정도

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본 학회의 주요 사업 내용을 <표1>과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식품·발효 등 산학협력연구를

<앞으로의 발전방향> 1)농화학은 생명현상을 화학적으로 다루는 학문영역의 특징을 심부 발휘하여 농작물의 세포 및 분자 단위의 연구를 강화시키므로 농업분야의 기초 학문으로 자리를 유지,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유전공학의 영역도 작물 생산과 연계하여 심도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학회의 성격상 응용 학문영역이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는 있지만 농업분야의 기초과학(science)을 심도있게 연구하는 학회로 발전할 때 응용분야도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 작물생리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생물공학, 천연물, 기능성 신물질의 연구와 그 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토양이나 비료, 농약분야에서는 작물 재배환경의 보존·개선, 유해물질의 경감 방법 등이 개발되고 지구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화학분야의 총체적 기술개발도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4) 식품, 발효, 미생물분야는 중요한 농화학의 응용학문영역으로 보다 활발한 산학협력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5) 인근 학문영역의 유관 학회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며 농화학 연합체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학술 교류에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6)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한국 농화학분야의 학술정보를 신속히 교환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㉞

<표 1> 주요 사업내용

연도	학술지 발행			기타 간행물	주요 행사	회장	정회원	단체회원
	권	호	논문수					
1960	1	1	11		생화학, 토양, 식품, 발효, 농약, 방사화학 분야별 편집위원 6명	김호식	81	20
1961	2	1	10		문교부 학술단체 등록		120	20
1962	3	1	5		간사 제도		120	20
1963	4	1	9				136	26
1964	5	1	10				184	20
1965	6	1	14		농화학상 제정, 지부설치		227	14
1966	7	1	15				251	8
1967	8	1	14		논문 투고 양식제정		300	16
1968	9-10	2	24				395	40
1969	11-12	2	26		학술지 연2호 증간, 회지발간 경비 정부보조	이춘영	446	21
1970	13권	3	24		학회지명칭을 한글화, 권(호)제도 도입		507	42
1971	14권	3	16					
1972	15	3	26				546	27
1973	16	3	18				561	27
1974	17	3	21				566	18
1975	18	4	26		학술지 연4회 발간			15
1977	20	4	38		총설 게재		620	22
1978	21	4	25				645	27
1979	22	4	30		논문심사제도 개선, 회지연말호에 논문목록 게재	김재욱	660	32
1980	23	4	23	한국농화학회 20년사 발간	창립 20주년 투고논문 작성법제정 배포		674	33
1981	24	4	39			홍종욱		24
1982	25	4	38					24
1983	26	4	40			박윤중		24
1984	27	4	45					28
1985	28	4	41			김동연		28
1986	29	4	57					28
1987	30	4	53			윤형식	432	29
1988	31	4	59					33
1989	32	4	53			히덕모		30
1990	33	4	56		생물활성 천연물 화학의 진보 심포지엄		470	25
1991	34	4	57			이계호	532	58
1992	35	4	76				632	52
1993	36	6	84		식물생장과 환경심포지엄	김찬조	598	54
1994	37	6	82	농업생명 과학 1권	농업생물공학 심포지엄	임선욱	706	57
1995	38	6	106	농업생명 과학 2권2호	환경개선을 위한 농화학적 접근 심포지엄	안승요	741	31
1996	39	6	91	농업생명 과학 3권2호	호소이용 첨단농업생명공학기술 심포지엄	전문진	769	34